

전략은 보이지 않는 점수다.
이제 전략을 높여라!



Chapter **04**

2011 정시 모집 논술고사 전망과 대비법

- I. 서울대 논술고사
- II. 서울교대 논술고사

I. 서울대 논술고사 출제 전망과 대비법

①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특징

서울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201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계열에 따라 평가 내용, 문항 수 및 고사 시간 등은 다르지만 출제 범위는 모든 계열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여 논술고사 문항으로 출제했을 때 이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단순히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교과가 갖고 있는 특징과 각 교과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사고 과정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1-1] 서울대 모집단위별 논술고사의 특징

모집단위	특징	인문계열	자연계열
평가 내용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	수리·과학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분석·구성능력, 통합적 추론 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논리적 설명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출제 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소재의 제시문	
문항 수		3문항	4문항
고사 시간		300분(5시간)	300분(5시간) * 자연계열에 한하여 답안 작성 시 연필 사용 가능

서울대 정시 논술의 특징은 2010년 7월에 발표한 「2010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고사 문항 설명 및 채점 총평」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논술에 주어진 정보와 조건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 과정에서는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모집단위에 맞게 출제 방식은 물론 평가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2배수(체육교육과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성적을 반영한다. 이미 확정된 학생부, 수능시험 결과와 달리 논술고사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학생부 점수와 수능 점수를 이를 통해 만회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 전형을 지원한 학생이라면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유형과 출제 방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특징에 맞추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경우 타 대학과 차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2 서울대 정시 모집 전형 요소와 배점

구분		1단계(수능)	2단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논술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실기고사	총계
인문계열		2배수	40	10	20	30			100
자연계열		2배수	40	10	20	30			100
사범대학	인문계열	2배수	40	10	20	22	8		100
	자연계열	2배수	40	10	20	22	8		100
	체육교육과	3배수	16	4	20	12	8	40	100

② 출제 경향 분석 및 2011학년도 출제 전망

(1) 인문계열

① 출제 경향 분석

1) 교과 영역 간 통합도 상승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2010학년도 정시 논술고사의 가장 큰 특

정은 다양한 교과 영역의 통합 구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인문 영역과 수리 영역의 통합적 사고를 평가하며, 세부적으로는 언어, 수리, 경제, 국사 등 교과 과목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0학년도 정시 논술 [문항 1]에서는 ‘페니실린’과 ‘오존층’ 발견 사례를 생물과 지구과학적 측면의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문항 2]는 경제적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문항, 그리고 [문항 3]에서의 국사 영역을 통한 사회 사상과 쟁점에 대한 문제 등 통합교과적 특성을 전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9학년도와 문항 구성을 비교해 보면 세 개의 문항으로 유지한 것은 2009학년도와 동일했으며, 논제 수는 4개에서 5개로 늘었고, 분량은 기존 5,000자 정도에서 4,800자로 다소 줄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관건

서울대 논술고사는 지속적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논술고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지난해 문제에서는 [문항 1]에서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적 사례들을 찾아낸 후 ‘창의적 사고’에 대한 정의와 적용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모든 문항들이 단편적인 이해와 서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과 통찰 그리고 종합적 해결이 필수적인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거 제시 및 다른 영역에 대한 사례 제시, 타당성 검증 등 기본적인 논제 구성은 기존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논리적 추론 및 검증 과정 중시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대 2010학년도 정시 논술고사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인문학적 요소와 결합해 서술하고, 경제적 요소를 활용해 미래에 대한 예측 과정까지 서술할 수 있어야 해결되는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적 사고를 요하는 추론 과정과 증명 과정들을 서술하는 논술문 형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근거나 논리가 아니라 제시된 요소들을 가지고 예측 및 타당성 평가 등 증명 과정으로 서술할 때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종합적 사고력의 심화 및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이 중요 (제시문의 활용도 감소)

2010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는 같은 해 수시 논술고사와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활용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암기된 지식과 서술을 방지하

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울대는 2010학년도 정시 논술고사 문항 설명 및 채점 총평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5,000자 정도의 장문을 서술하기 위해서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수험생 스스로 종합적 독서와 통합적 사고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무리 없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요구 조건들에 위배된 서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과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충실히 충족시켜야 하며 내용을 제시된 범위 안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표 1-3]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항 분석

구분	2009 정시 논술고사	2010 정시 논술고사
실시	2009. 01. 12	2010. 01. 11
문항 성격	언어 사회 통합형 3문항	언어 사회 통합형 3문항
문항 요지	[문항 1] 삶의 다양성의 문제 [논제] 삶에서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 요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와 그에 반하는 사례를 문학, 예술,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 요구, 제시문의 논리 구성 보완 요구)	[문항 1] 창의적 사고 [논제 1] 플레밍과 히틀리의 과학적 발견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찾아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그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기여한 바 기술 (800± 100자) [논제 2] 제시문 (가)와 [논제 1]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과학 이외의 영역에서 그러한 창의적 사고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논할 것. (800± 100자)
	[문항 2] 오존층 파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안 [논제 1] 제시문 (라)의 문제(오존층 파괴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과 근거 제시 요구 [논제 2] 제시문 (라)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이유 기술 요구	[문항 2] 지속적 경제 성장의 문제 [논제 1]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할 것 [논제 2]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의 주역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 ①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기에 족한가? ②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가?
	[문항 3] 민족 문화와 한옥 [논제] 한옥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변동이 이루어지는 양상 서술 요구(다음 조건 충족 요구) 1.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이 한옥으로서의 진정성 유지 여부 2.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한옥의 요소 3. 가옥 구조와 삶의 방식의 영향 관계	[문항 3] 노비제의 타당성 비판 [논제] 자신이 19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가상하고, 노비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문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① 노비제에 대한 (나)와 (다) 주장의 비교·설명 ② 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구분	2009 정시 논술고사	2010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	[문항 1] $\langle$제시문$\rangle$ -개인파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삶의 다양성 필요(윤리와 사상 교과서)	[문항 1] (가) 창조성은 상상력에 기반(kant의 예술의 창조성 개념) (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고등학교 10학년 『과학』교과서 (다) 하틀리의 '오존층' 발견 사례-고등학교 10학년 『과학』교과서 -그림 1 : 복사에너지의 세기와 파장에 관한 곡선 그래프 -그림 2 : 흄광도와 파장에 관한 곡선 그래프
	[문항 2] (가) 사회적 쟁점 해결 방식-사회 교과서 (나) 공동 사업의 성사와 합리적 배분 (다) 복지 재단 A와 B의 기금 효율화 방안 사례 (라) 오존층 파괴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문항 2] (가) 한 국가의 실질 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과의 관계 -그림1 : 노동이 일정한 경우에서의 실질 GDP와 노동의 관계 그래프 -그림2 : 자본이 일정한 경우에서의 실질 GDP와 노동의 간계 그래프 -표 1 :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의 상대적 성장 기여도(한국外 5개국) (나) 문화적 힘의 필요성-김구, 「나의 소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문항 3] (가) 민족 문화 정수의 유지 및 발전 필요(사회문화 교과서) (나) 전통 문화 개념에서의 진정성 문제 (다) 한옥의 구조와 특징 (라) 지자체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사례 (마) 전통적 가족에서 어우러지는 가족의 명절 모습 묘사 -백석, 「여우난 꿈죽」 $\langle$자료 1$\rangle$ 문화재 한옥과 한옥마을의 한옥 그림 $\langle$자료 2$\rangle$ 주택 평면도 그림	[문항 3] (가) 실학의 발생과 목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나) 노비법의 문제점과 대안(노비법 폐지안)-유형원, 『한계수록(檀溪錄)』, 1670 (다) 노비법의 복구(귀천과 서열의 구분이 사회의 안정에 기여)-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
관련 교과	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국어, 인간사회와 환경, 시민 윤리, 전통 윤리	경제, 국사, 문학, 사회, 사회·문화, 생물, 철학(미학), 지구과학

② 201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 출제 전망

2011학년도 서울대의 논술고사의 경향 또한 기존 방향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계의 경우, 인문과 수리 영역부터 다양한 과목의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이 출제될 것이며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2011학년도 정시 논술고사 역시 학생들이 배웠던 교과서 수준의 주제 및 소재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시문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논제의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제시문 독해보다는 심층적인 사고와 논증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관건인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미리 준비한 답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주어진 문제에 따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논제의 유형에 대한 훈련과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대의 문제는 단순한 주장과 근거를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위적인 주

장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또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한계를 판단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09학년도 문항에서처럼 반론과 재반론 역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자연계열

① 출제 경향 분석

서울대 정시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서로 다른 교과에서 얻은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1)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이다. 이는 논술고사를 채택한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출제 방향으로 각각의 문항의 주어진 제시문과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충실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제한하는 2)교과과정 중심의 논술고사를 지향한다. 각각의 논제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3)과정 중심의 논술고사이고, 총 300분의 시간 중 많은 세부 논제들로 구성된 2문항씩을 150분 동안 해결해야 하는 4)자기 주도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논술이다. 이러한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 지식들을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학과 과학 교과가 서로 통합된 4개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문항은 과학 교과 영역(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통합된 3문항, 수리 단독 또는 과학 교과와 통합된 1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통합되는 교과 영역은 달라진다. 2010학년도 과학 문항은 물리·지구과학 교과통합 유형, 생물·물리 교과통합 유형, 지구과학·화학 교과통합 유형으로 3문항이 출제되었고, 수학 문항은 물리 영역과 결합하여 출제되었다. 교과통합형 논술은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논술고사 유형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들을 기계적인 나열로 정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사고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새롭게 연결하고 서로 전이시키는 과정을 할 수 있는지를 교과들이 통합된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어진 제시문과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제한한 교과과정 중심의 논술고사

문항은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주제와 제시문, 관련 자료가 구성되어 학생

들에게 친숙한 내용이 제공된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서울대 측의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익숙한 주제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평이한 답안을 작성하는 수준의 논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10학년도에도 친숙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채점 총평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시문을 재조합한 단순한 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학습한 친숙한 내용들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논제와 연결된 고리를 찾도록 해야 하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출제 경향에 맞게 익숙한 주제들에 관한 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 중심의 소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순차적으로 풀이하는 해결 단계들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의 논술고사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이면서도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제시된 정보들을 자신만의 사고 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보여주어야 하는 과정 중심의 유형이다. 따라서 풀이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논리적 사고 과정들을 누락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출제자이 각 단계들마다 제시한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거나 명확한 결론만을 요구하는 논제들 보다는 학생 스스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논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논제를 접했을 때 그 논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결과와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더라도 해결 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선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들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자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보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개한 사고 과정과 논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답안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채점한 총평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2010학년도 정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밝힌 결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고 있지 않거나 중간 단계 없이 결론만을 내리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4) 여러 세부 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자기주도적인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논술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는 300분(5시간) 동안 작성한다. 고사 시간은 타 대학에 비해 긴 편에 속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논제 수까지 고려하면 한 논제 당 주어진 시간은 그리 충분하

지 않다. 2010학년도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14개의 세부 문제들을 출제하여 전년도에 비해 문제 수를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었다.

2011학년도에도 2010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문제들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논술고사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사고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사 시간에 맞게 자신의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실제 시험에서는 150분 동안 2문항씩 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안에 완벽하게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집중력과 동시에 해결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세부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되며 균형있게 시간을 분배하되 문제별 난이도를 우선 파악하여 이해와 분석만을 바탕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표 1-4] 서울대 정시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항 분석

구분	2009 정시 논술고사	2010 정시 논술고사
실시	2009. 1. 12	2010. 1. 11
문항 성격	통합과학형 3문항 수리형 1문항	통합과학형 3문항 수리형 1문항
관련 교과	화학 I - 주변의 물질 화학 II - 물질의 상태와 용액 지구과학 I - 살아있는 지구	과학 - 에너지, 지구 물리 I - 파동과 입자 지구과학 I - 살아 있는 지구
	생물 I - 영양소와 소화 생물 II - 세포의 특성	과학 - 에너지, 생명 물리 I - 전기와 자기 화학 I - 생활 속의 화합물 생물 I - 호흡
	과학 - 환경 생물 I - 자극과 반응 생물 II - 물질 대사	수학 10-나 - 도형의 방정식, 삼각함수 수학 I - 수열, 수열의 극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물리 II - 원자와 원자핵
	물리 I - 힘과 에너지 미분과 적분	과학 - 에너지, 지구 물리 I - 파동과 입자 지구과학 I - 살아 있는 지구
		물리 II - 원자와 원자핵 화학 II - 물질의 구조 지구과학 II - 천체와 우주
문항 요지	[문제 1] 물의 성질로부터 물에 표면장력이 존재함을 논술하고 표면장력의 크기 추정하기 [문제 2] 물방울의 반경과 생성에너지 사이의 관계와 에너지 함수가 물방울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기 [문제 3] 해염 입자가 구름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의 구름보다 작은 구름이 생성되는 이유 추론하기 [문제 4] 인간의 활동이 강수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하기	[문제 1] 쓰나미가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접근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파고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논하기 [문제 2] 방향에 따라 쓰나미가 서로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논하기 [문제 3] 고래들이 먼 거리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기

구분	2009 정시 논술고사	2010 정시 논술고사
문항 요지	[논제 1] 세포막이 실온에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논하기 [논제 2-1] K^+, 글루탐산, 포도당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각각의 농도를 갖기 위한 막단백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기 [논제 2-2] 삼투압의 증가로 인해 인공세포막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다량의 포도당을 세포막내에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 추론하기 [논제 3] 인공세포를 만들어 세포내 Na^+의 농도보다 높은 소금물을 넣어 준 후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세포막을 통한 Na^+의 이동 기작에 대해 논하기	[논제 1] 공기가 물보다 더 효과적인 호흡 환경인 이유를 기체의 조성과 확산,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의 관점에서 논하기 [논제 2] 이산화탄소와 온도의 증가가 정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호흡 가스 교환 작용에 주는 영향에 대해 추론하기 [논제 3] 대기와 폐의 mmHg 기압 차이가 활동에 필요한 분당 8L의 공기를 유입하는데 충분함을 보이기 [논제 4] 유아호흡장애증후군이 생기는 원인과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치료법이 유용한 이유를 물과 계면활성제의 분자 구조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추론하기
	[논제 1] 태양광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제공하더라도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이유와 전자기파에 노출된 물체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추론하기 [논제 2] 광합성에서 물 분해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고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와 식물의 극복 방안에 대해 추론하기 [논제 3] 태양광 전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태양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논제 4]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설치비용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설치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태양광 전지의 경제성,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기	[논제 1] 임의의 수열이 일정한 각일 때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주어진 선분들의 길이의 무한급수가 항상 수렴하는지 논하기 [논제 2] 임의의 수열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때 주어진 선분들의 길이의 무한급수가 항상 수렴함을 설명하기 [논제 3] 일정한 길이마다 정해진 각도로 방향을 바꾸어 다각 나선을 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을 때 특정한 점이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 기술하기 [논제 4] 각이 변할 때 선분이 지나간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넓이 구하기
	[논제 1] 미분방정식의 해가 초기 조건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됨을 보이기 [논제 2] 미분방정식의 해가 초기 조건을 만족할 때 근사값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점화식과 값 구하기 [논제 3] 각 그림에 표시된 점에서 시작하는 거미줄그림의 개형을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해 논하기 [논제 4-1] 임의의 점에서 출발할 때 이 증가함에 따른 수열의 행동을 추정하고 근거도 설명하기 [논제 4-2] 미래 시점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결정론적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기	[논제 1-1]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흡수 봉우리들을 바탕으로 성간 구름에 물분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논제 1-2] 별의 대기와 성간 구름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차이점에 대해 유추하고 그 근거를 두 환경의 온도 효과로 설명하기 [논제 3] 양성자가 상호 반발력에 의하여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리를 근사로 구하고 고전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보이기 [논제 4] 별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원자핵 생성까지만 진행되는 이유를 논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류가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② 2011학년도 논술고사 자연계 출제 전망

2011학년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둔 통합교과 논술고사 유형을 유지할 것이다. 고사 시간과 논제 수, 출제 범위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분 동안 4개의 문항을 해결해야 하며, 4개의 문항은 모두 10~15개 사이의 세부 논제로 구성될 것이다. 각각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수학·과학 교과 영역에서 출제하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해결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출제 소재와 주제도 출제 원칙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 교

과서에서 발췌하여 구성될 것이다.

통합교과 문항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 영역들이 서로 연결된 문제들과 수리 단독형 또는 수학과 과학이 통합된 형태로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는데, 교과목 사이에 연계성이 높은 화학과 생물 교과, 물리와 지구과학 교과들이 서로 관련지어 많이 출제되므로 이러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사이를 영역 전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기출 문항을 바탕으로 2011학년도 출제될 문항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 사이에 연관성 높은 단원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통합교과형 문항 유지

통합교과형 문제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각각의 분리된 교과 영역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학습 과정의 서로 다른 교과들에서 얻은 지식들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중심으로 출제된다. 이러한 출제 원칙에 따라 학생들은 수학, 과학 교과에서 연계성이 높은 단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합적 사고 과정의 기본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관련 지식들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지식들이 비판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고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통합교과 유형의 문항들을 풀이하면서 자신만의 구조와 언어로 체계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계성이 높은 단원의 주제들 중 특히 올 한 해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라 하더라도 해결 과정에서 수학, 과학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깊이 숙지하기보다는 관련 교과 지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과학 문항 - 자연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형을 스스로 구상해보는 형태

과학 교과의 문항의 경우 대부분 두 교과 영역이 통합되어 출제되는데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의 경우 총 4문항 중 3문항이 이러한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되는 유형을 보면, 화학, 물리 교과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는 수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수식을 직접 설정하거나 관련된 관계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며 생물 교과 영역의 문항은 주변의 현상과 밀접한 교과인 만큼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원리를 분석하여 새로운 조건에 적용하는 유형으로 출제한다.

이처럼 서울대에서는 출제 방향에 맞게 교과과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논제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들에 대해 사고하고 응용하는 논제를 출제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이러한 유형의 논제들을 쉽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사고력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결과 중심형의 문항보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는 문항을 많이 접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통합교과형 과학 문항이 사고력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교과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만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명확한 해결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리 문항-생소한 주제의 소재를 다루되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를 묻는 형태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에서 수리 교과 문항은 1문항이 출제되는데, 다른 교과와 통합되지 않은 단독형으로 출제되거나 과학 교과와 통합된 형태로 출제된다. 2010학년도 수학 문항의 경우에도 물리 교과 내용을 제시문으로 다루었지만 실제 논제에서는 수학적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수학 단독형 문항에 가깝다. 이처럼 서울대 수리 문항은 교과서 밖의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풀이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향을 보면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소한 내용들이 제시되었을 때 해결 과정도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서울대 수리 문항의 경우 교과 외의 영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되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제시문과 논제에서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찾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밖의 심층적이고 생소한 내용을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들을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겠다는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유형으로 응용되어 출제되더라도 해결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풀이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대비법

서울대 논술고사는 특히 단기간에 ‘속성’으로 준비한 배경 지식이나 모범 답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유형이다. 지속적인 독서와 쓰기 훈련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교과서 중심의 주제와 제시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온 학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편적 지식과 사고만으로는 논술고사에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장문의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당장 계획을 세워 집중적인 글쓰기 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기출문항을 완벽히 분석하라.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먼저 최근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대는 매년 정시 논술고사에 관한 논술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출 문항을 동일한 조건에서 스스로 직접 풀어보고 서울대에서 매년 발표한 「정시 논술고사 문항 설명 및 채점 총평」을 검토하고, 발표된 기준과 학생 예시 답안을 본인이 작성한 답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문항 구성 경향부터 답안 분량 조정, 응시 시간 배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주제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물어보는 문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분석해 보면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예상해보거나, 빈출 주제 등을 정리해보는 것도 다양한 관점과 문제 해결 방향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과서 쟁점을 점검하라.

서울대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미리 특정 주제에 대해 고정적인 답안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형적으로 암기된 지식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사적 쟁점에 대한 준비보다는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 등에서 교과서적 쟁점에 관한 개념 정리와 연구 문제 풀이를 통한 사고의 확장 과정을 훈

런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대 논술고사는 첨예한 쟁점을 다루는 시사성이 강한 주제보다는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적 주제나 쟁점을 주로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3) 개요 짜기를 연습하라.

서울대 논술고사는 300분 즉 다섯 시간 동안 4,800자에서 5,300자 정도의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전 훈련과 동일한 반복적인 연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문제와 제시문을 읽고, 전체 구성과 시간 배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개요 짜기 연습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논술고사를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논제를 읽으면서 그 요구 조건을 세분화하여 목차를 작성하고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답안 방향을 분량과 함께 구성해 보는 것이다. 시간 배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 두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모의논술에 응시하라! 첨삭은 필수!

남은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 모의 논술시험에 응시해 봐야 한다. 출제 유형은 물론 시험 시간이나 답안지의 형태 등 사소한 것까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골라 보는 것이 좋다.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라. 유의할 것은 시험만 치르고 첨삭을 받지 않는다면 모의 논술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다. 실전처럼 모의 논술시험에 응하고, 반드시 첨삭을 받아 본인의 약점을 확인, 보완해야 한다.

첨삭을 받았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보는 것이 좋다. 첨삭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평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처음 작성한 답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답안을 다시 작성해 보자. 그 다음 처음 썼던 답안과 다시 쓴 답안을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짧은 기간에도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고쳐나갈 수 있다. 그 동안 첨삭 받았던 답안지를 살펴보면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자주 지적 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짧은 시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5) 동일 문항의 답안을 고치고, 또 고쳐 쓰라.

첨삭은 자신의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직접 작성한 답안을 평가 받는 것으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부족한 점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평가 수단이 된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도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채점자들에 의해 평가 받게 되는데 수많은 수험생들의 답안 중에서 자신의 답안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인 첨삭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답안에 대한 첨삭 내용을 숙지한 후에는 동일한 논제로 다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첨삭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보완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작성하였던 답안과 다시 쓴 답안을 비교해 보면 자신이 찾은 약점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보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전을 앞두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보충하길 원한다면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Ⅱ. 서울교대 논술고사 출제 전망과 대비법

① 서울교대 정시 논술고사의 특징

교육대는 기본적으로 ‘교사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재한다. 각 대학은 그 대학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일환인 논술고사에서 그 목적은 유효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육대 논술은 ‘교육과 교육자’와 관련된 주제들이 빈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합 논술 경향에 따라 그 경계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는 ‘다문화주의’, ‘세계화’ 등 그 주제 및 논제 형태가 일반 대학의 논술과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논제의 경우도 이전엔 비교적 단순한 서술형 논제에서 제시문들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보다 심층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2010학년도 서울교대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다른 대학의 출제 경향과 유사하게 많은 도표와 그림, 즉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서울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출 문항뿐 아니라 다른 일반 대학의 기출 문항과 빈출 주제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특수 대학인만큼 교육과 관련된 쟁점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단순히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면접 및 적성고사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이므로 ‘교육관’, ‘바람직한 교사상’, ‘현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등 교육 관련 쟁점들을 필수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교육대 논술고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위와 같은 특수 목적과 더불어 1,400자~1,800자 분량으로 한편의 장문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서울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장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출제 경향 분석 및 2011학년도 출제 전망

[표 II-1] 서울교대 논술고사 문항 분석

구분	2009 수시2 논술고사	2009 정시 논술고사	2010 수시 논술고사	2010 정시 논술고사
실시	2008. 10. 18	2009.01.14	2009.10.17	2010.01.15
문항 성격	인문 사회 통합형 1문항	인문 사회 통합형 1문항	인문 사회 통합형 1문항	인문 사회 통합형 1문항
문항 요지	세계화 시대의 언어관 [문제] 세계화 시대의 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발생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본인의 미래 지향적인 언어관 을 제시문 (다)와 (라)의 관점과 관 련하여 서술.(1,800자 내외)	현대 사회와 학문의 목적 (순수성과 실용성) [문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한 입장을 선택해 제 시문 (다)를 옹호 또는 비판 요 구.(1,400자 내외)	사회적 역할과 상호 작용 (교사의 자세) [문제] <보기>에 등장하는 답스는 교 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에 답하시오.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답스가 지닌 문제의 발생 원인 제시 (2) 제시문 (나)와 (다)에 내포된 공 통된 함의에 대해 논하기 (3) 위 (2)에서 논한 함의에 입각하 여, 답스와 같은 학생을 지도하려면 교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할지 논 하기.(1,800자 내외)	환경 문제의 대안과 교육의 미래 <보기>에 제시된 A~D를 참조하여 (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 비교 하고, (2) 그 중 하나를 정당화한 후, 그 관 점이 미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 하기.(1,400자 내외)
제시문 출처	(가) 경제 신문-아이슬란드가 국제 통화기금에 (IMF)에 구제 금융을 요 청했다는 내용의 기사 (나) 김소희, 생명시대 (다) 복거일,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라) 앤드류 달비, 언어의 종말	(가) 오가와 요코, 박사가 사랑한 수 식 (나)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다) 자크 러골레르프, 강연 中	<보기> 엑슬린, 『답스』 (가) 순자, 『순자』 (나) 클레이저즈펠트, 『의미의 구성』 (다) 김춘수, 『꽃』	A: 세계 각국의 한파·폭설·폭우 피 해 현황 (그림포함) B: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연도별 이 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프) C: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 량 (그래프) D: 에너지원별 발전 단계(그래프) (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지 메 이슨 대학 연설문』 (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 된 미래』
관련 교과	사회, 사회·문화, 인간 사회와 환경	사회·문화, 전통 윤리, 철학	문학, 윤리와 사상, 사회, 사회·문화	경제, 사회, 사회·문화, 인간 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서울교대 논술고사는 통합교과적 자료 제시 형태로 총 120분 간 1문항이 출제되며 기존의 수시 전형에서는 1,800자 내외의 답안을,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1,400자 분량의 답안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400~1,800자 내외에서 유동성 있게 출제되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답안을 분량을 염두에 두며 함께 연습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학교 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of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교과적 논술 문제가 출제되며, 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과 폭넓은 독서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대 논술은 ‘교육과 교육자’와 관련된 주제들이 빈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합 논술 경향에 따라 그 경계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서울교대의 경우는 ‘다문화주의’, ‘세계화’, ‘학문의 목적’ 등 그 주제 및 논제 형태가 일반 대학의 논술과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교육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010학년도 정시 논술고사의 경우에도 환경 문제와 대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연관지어 사고하고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논제의 경우도 이전엔 비교적 단순한 서술형 논제에서 제시문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보다 심층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2011학년도에도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물을 수 있고 제시문이나 세부 논제는 사회적 역할과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고전과 문학 지문이 제시되어 출제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자면, 2009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시사성이 강한 현실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원인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전에 비교적 간단·명료한 제시문의 논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묻는 서술형 논제가 출제되었다면, 2009학년도에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라는 맥락 안에서 금융과 환경에 관한 서로 다른 영역의 공통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이것을 다시 ‘언어’의 영역에 적용시켜 답안을 서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기존 1,400자에서 1,800자로 분량이 증가한 점도 특이할 만하다. 2009학년도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학문의 목적이라는 주제 아래 순수성과 실용성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있다. 논제도 공통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제시문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자신의 견해나 해결책을 묻던 것과는 달리 문제 발문에서는 키워드를 전혀 제시해 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끔 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제시문들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한 입

장을 선택해 다른 하나의 제시문을 옹호 또는 비판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견해 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논점을 충실히 활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경향과 구별될 수 있다.

③ 서울교대 정시 논술고사 대비법

교육대학이라는 특수 목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논술고사 준비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논술 실력 향상의 핵심은 쓰고, 고치고, 또 써보는 것이다. 단기간에 독서량을 늘리거나, 논술 교재를 학습하는 것으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실전 문제를 갖고 동일한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써보는 훈련만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또한 답안을 작성한 이후 그에 대한 첨삭 및 평가를 받는 것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첨삭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깨닫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첨삭을 받은 이후 그냥 넘기지 말고 동일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최근 기출문항 분석과 모의논술 응시 및 첨삭은 모든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이다.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답안을 고치고 또 고쳐서 완성시키는 것 역시 논술 실력 향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훈련과정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서울교대 논술고사에서 도표나 그림 등의 자료가 많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요하는 문제가 빈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사탐 교과서 및 신문 기사의 통계 자료 등을 살피며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

(1) 빈출 주제 정리하기

서울교대 논술고사는 타 대학의 일반적 논술 경향과 교육대의 특수성이 혼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사적 쟁점과 교육적 쟁점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출제되었던 빈출 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빈출 주제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예시이다. 따라서 전체 논술고사에서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들을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09학년도 수시의 ‘세계화의 문제’나 ‘학문의 목적’, 2010학년도 정시의 ‘환

경문제와 그 대안' 등의 주제는 역대 모든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빈출되었던 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빈출 주제들을 교육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보는 연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논술문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육적 관점으로 연결해보고, 사고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2) 최근의 사회 쟁점(교육 쟁점)정리하기

논술고사의 주제는 늘 다양하고 또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그런 경우, 최근의 이슈 중 새롭거나 중요한 쟁점을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또는 올해의 시사적 쟁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육적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대의 특수성에 맞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논술고사 뿐 아니라 면접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정리해 둔다면 유리할 것이다.

(3)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육의 방향에 관한 다양한 입장 검토 및 본인의 입장 세워두기

교육대의 논술고사 및 면접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 중 가장 빈출되는 주제이면서도 그 대답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사의 상', 또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일 것이다. 이 주제는 단지 학생들을 위한 시험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정책에서도 매해, 매번, 반복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교육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고사 뿐만 아니라 면접고사, 그리고 더 나아가 임용고사에서 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만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